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실시

부안군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025년 전북자치도·부안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란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810개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며 조사는 조사원이 각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군 특성항목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20명을 투입하고 사전 교육 등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어린이 교통안전 과속경보시스템 추가 설치

정읍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

시는 올해 수성초, 칠보초, 태인초, 입암초, 대흥초 등 5개교에 총 10대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현재 속도를 표시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장치다.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해까지 정읍동초교 등 8개소에 총 20대를 설치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과 사고 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책일몰제’로 예산 낭비 막는다

정읍시,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 정리… 선택 · 집중으로 행정 혁신 앞장서

정읍시가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시책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유용한 시책은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시정 운영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폐지하는 제도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시 전 부서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시책과 사업, 행사 등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일몰 발굴 대상 사업으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시민 만족도가 낮고 불편을 초래한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예산 또는 행정력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자체 검토와 함께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확정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삭감 등을 거쳐 종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확보되는 예산과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해 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효과가 미미한 사업을 정리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중심 행정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행정 안정성 · 업무 지속성 확보” 강조

주요 간부회의 개최… “부안마실축제 장애인 · 보행약자 편의 지원 점검” 등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행정 안정성과 업무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7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과 앞으로 이어지는 대선 국면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안정, 복지 지원체계 점검을 비롯해 국가예산 확보 및 대외협력 등 주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변수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치러지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중 인파 밀집, 임시 구조물 설치, 동선 제한 등으로 인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인도·횡단보도 이동, 경사로, 도로 턱 등에서 불편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는 이동 장애 요소가 없는지 사전 점검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대광법(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주시와 인근 지역까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 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주권 광역 교통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관련 부서는 부안~전주간 광역 교통망 확충 방안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동향 파악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 성황리에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다렸나, 봄’이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 이번 축제는 지난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유명 초대가수와 함께한 개막식,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군민·청소년 페스티벌이 연이어 펼쳐지며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다.

특히, 이번 벚꽃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야간 경관 조명은 끝없이 펼쳐진 벚꽃터널 아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다양한 포토존으로 구성되어, 늦은 밤까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쉼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제 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외야석에 강렬한 광고를 선보이며 야구팬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

“고창 농산물 진짜 홈런맛이다”

고창군, 광주 기아타이거즈 홈구장서 홈런급 존재감 발산

고창군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외야석에 강렬한 광고를 선보이며 야구팬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맛있다! 고창 복분자 수박 멜론 고구마 홈런 맛!’의 직관적이고 유쾌한 광고문구로 야구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홈런이 터질 때마다 중계 화면에 등장해 전국적인 노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팬들 반응도 뜨겁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홈런 맞추면 복분자 주냐”, “고창 농산물 진짜 홈런맛이다”, “고창이랑 내적 친밀감 생긴다” 등 재미있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장은 “기아타이거즈 홈구장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고창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고창 농특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야외활동 후 열 나면 의심”

정읍시보건소, SFTS · 쯔쯔가무시증 주의 당부

최근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정읍시보건소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에 들어간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대표적이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해당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 물린 뒤 발열, 오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인다. 쯔쯔가무시증은 관련 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장화와 모자를 써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작업복과 평상복은 구분해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된다.

풀밭에 그냥 눕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하며, 휴식을 취할 때는 돗자리나 농작업용 방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을 마친 후에는 입었던 옷을 즉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기 쉽다”며 “야외 활동 후 두통, 오한, 구토,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환자 발생이 잦은 지역과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